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 영상메세지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입니다.

국가 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기까지는 민주주의 발전, 국민과 시민사회의 지지, 그리고 인권에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열정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기존의 관행과 제도에 낙담하고 좌절한 사람들의 호소를 진솔하게 해소해 온 국가인권위는 국민들 사이에서 가깝고 신속한 권리 구제 기관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은 법과 정책 제도를 새로 마련하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인권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나 가진 것으로 여겼던 인권이라는 가치가 어느덧 국민들의 일상과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의 국가 권력과는 다른 새로운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인권위가 짧은 기간에 국민 속에서 크게 성장한 것은, 행정, 입법, 사법부로부터 독립해서 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권은 상식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며 그 같은 믿음의 바탕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에 끊임없이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